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환경교육을 통한
문제해결의 능력 부여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다.**
”



손희만 / (환경처 홍보지도담당관)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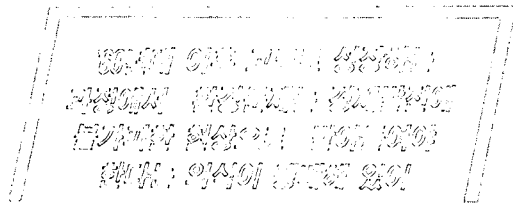
얼마전 어느 민간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오늘의 우리 환경을 민생치안 다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이만큼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국민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바로 국민의 환경의식을 대변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웅변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환경교육을 통한 문제해결의 능력 부여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하여, 이제는 교육이 환경시책의 한 부분으로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기관 및 학교등을 중심으로 연구·제작물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비자보호단체나 여성단체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교육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사회 환경교육의 현황

일반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는 바로 일반 사회인 즉, 성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이들의 환경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하여는 장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인대상의 사회환경교육은 환경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실무교육과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현재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1980년 환경청 발족과 함께,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환경관련사업 및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민간기술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3개과정 전문교육 5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전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1종, 2종, 3종사업장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전문과정(4일교육), 4종, 5종 사업장의 관리인에 대해서

는 일반과정(2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일반사회인에 대한 환경교육

그간 환경처에서는 각종 민간인 교육훈련기관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의 직장교육, 공개강좌, 강연회등의 기회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고, 1987년도 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총무처)에 "환경보전"을 정부 주요시책 과목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일반사회인에 대한 환경교육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실상의 집계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작년도에 환경처에서 전국의 273개 기관·단체에 수차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파악한 환경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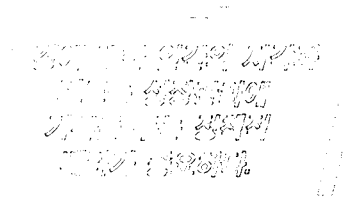
이 밖에도 T.V, 라디오 공익광고 등 각종 대중전달매체를 활용하여 기회교육차원에서 계몽하는 한편, VTR 및 슬라이드, 책자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보급 하고 있다.

참고로 '90년도의 홍보자료 배포 및 대역실적을 보면 책자의 경우 26종을 3,948개 기관·단체에 32,944권을 배포하였고, 개인에게도 486명에 대하여 8,018권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는 15종을 590개 기관·단체에 1 set씩 배포하였고 76개 기관·단체에는 이들 자료를 대역한 바 있다.

3 사회환경교육의 발전방향

그동안 환경처에서는 일천한 환경행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의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일반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효과적인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또한 관계관들의 이해부족과 재정부족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발전방향

환경업무를 직접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업무종사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수행 태도는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실로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환경업무는 종합 과학적인 기술 업무이므로, 현재 교육 과정은 직무 기능별로 전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방법도 현재의 강의 위주에서 현장학습관 시청각 교재를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다.

셋째, 직무 기능별 교육과정의 세분화, 교과목의 전문화 등을 통한 교육 훈련의 효과제고를 위하여는 전문화된 과정별 우수한 교관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증가되는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 실습 교육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사회인에 대한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이 범국민 계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기 위하여는 “환경보전”이 현재의 정부 주요시책 과목에서 통일안보, 경제교육등과 함께 국민정신교육 목표로 새로이 설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각급 공무원 정신교육훈련장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는 물론, 사회지도층(정신문화연구원), 공무원(총무처), 학생(교육부), 군인 및 예비군(국방부), 근로자(노동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통로를 개척,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추진기반이 되는 정보, 사람, 물자, 비용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통로를 개척하고 교육대상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효과적인 환경교수법 및 교관요원의 확보없이는 환경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일정지역(지방)에 적합한 환경보전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및 지역의 교육자료 개발·활용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일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을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여 그들 주민으로 하여금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과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가치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교육은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교육차원에서 각종매체, 모임, 공공기관과 학회, 자연학습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결론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태도는 성장관리에 기본을 두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며, 정책적 배려가 잘 되어야만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원”이라는 슈마허(E.F.Schumacher)의 말처럼 환경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